

전통 인쇄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직지 세계화 및 경쟁력 강화
국제페스티벌 개최 등 상품화
한·중·일 공동 한자서체 개발
다목적 인쇄박물관 건립도**

현존하는 최고 금속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는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원이자 세계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콘텐츠다. 그러나 직지와 전통 인쇄문화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는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활자 인쇄술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인쇄문화 중추국으로서의 역사성과 위상,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다목적 인쇄박물관 건립도 추진된다. 여기에는 출판계에서 추진하는 (가칭)출판박물관과 연계해 건립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2021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담겼다.

이번 계획은 최근 세계 인쇄문화산업이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정보기술과 인쇄기술의 융·복합과 증가 등 변화하고 있는 인쇄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년 계획에는 '한국 인쇄 비전 세계화로 한류 문화 견인'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4대 전략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친환경·첨단인쇄기술 개발, 인쇄문화산업 인프라 강화, 직지 세계화 및 고인쇄 문화 홍보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쇄중추국임에도 불구하고 위상이 미흡한 인쇄술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문제부

를 '직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학습 행사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명 국제 행사인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을 토대로 주요 도서전과 인쇄 전시회를 개최하고 직지를 소재로 한 문화상품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국내 인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부가가치 산업화 방안도 마련된다. 다양한 국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선진 인쇄기술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일 3국 간의 교류 증가로 인쇄출판 콘텐츠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3국 간 공동 한자서체를 개발,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주변국에 대한 인쇄물 수출을 확대하고 서체 수입에 따른 비용과 저작권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문제부는 국내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 해외 주요 전시회에서의 한국관 조성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해외 구매자 초청 국제포럼 개최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국제인쇄기자재 전시회(K-PRINT WEEK)'를 상업인쇄물, 인쇄패키지, 디지털 인쇄 등을 포함한 종합 전시 형태인 K-프린팅 페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 인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인쇄문화산업이 친환경, 청산산업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인쇄산업도 친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견인한다.

친환경인쇄 인증제도 도입과 인쇄기술의 최신 트렌드 연구도 지원한다. 또 3D 인쇄 기술을 활용한 신규 인쇄물 개발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수세계박람회 설치된 청주시 '직지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금속활자 인쇄 체험을 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립합창단 내일 '가곡의 밤'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합창단 제169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 날 공연에서는 한국가곡을 비롯한 독일·프랑스·이태리 등의 명가곡을 광주시립합창단원들이 독창과 중창 그리고 합창으로 선보인다.

한국가곡은 19세기 말에 시작된 '창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20년대 홍난파, 현제명, 박태준 등에 의해 우리시에 서양음악의 멜로디와 반주를 붙인 곡들이 시작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여성 6중창이 '저 구름 흘러가는 곳'과 '고향의 노래'를 선보이며, 테너의 목소리로 '벚꽃노래'를 펼친다. 이어 '연'과 '고독'을 노래한다. 이 두 곡은 근대에 작곡돼 불리는 우리 가곡이다. 이 밖에 '바위고개', '보리 피리', '코스모스를 노래함', '고향 그리워' 등도

펼쳐진다.

또, 독일가곡 '아델라이데', '죽음아,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세레나데', '마왕' 등과 프랑스 가곡 '돌시네아 공주를 향한 돈키호테'의 3악장 전주곡과 '까디스의 처녀들'을 선보인다.

러시아 집시민요 '검은 눈동자', 이태리 가곡 '새벽은 빛으로부터'도 연주한다.

이 날 슈베르트의 가곡 '마왕'은 해설자, 아들, 아버지, 마왕 등 4명의 성악가가 역할을 나누어 4중창으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광주시립합창단 임한규 지휘자는 "단풍처럼 잔잔히 물들어갈 아름다운 명가곡들로 꾸며질 광주시립합창단 '가을맞이 가곡의 밤' 정기연주회에서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613-8235.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틀 벗은 언어들의 낮선 만남

송과니 시인 '밥섬' 발간

"마음이라는 아득 요상한 마법이 우리 육신 속으로 불결 지어 숨어든 그 후로 집 앞 도랑은, 학교 앞 개울은, 마을 앞 강은, 저 망망 섬 앞 바다는, 그리고 모든 물은 흐르게 된 것이다."

시산맥 기획시선으로 발간된 송과니 시인의 '밥섬'은 정형화된 언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지형을 추구한다. 각각의 시들의 제목부터 특이하다.

'#1'부터 '#55'까지 붙여져 있는 것에서 보듯 송과니 시인은 기존의 시집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기와 시인의 문법을 따르며 "파격적이고, 낯설고, 생소한 경험의 태풍"인데 "교묘하게 언어와 문맥을 비틀고, 도치시키고, 생략하고, 비약하고, 교란시키는 역행의 심리가 그의 시를 창조한 혁명적 무기"라고 평한다.

모두 55편의 시들은 전통시단의 순리에서 벗어난 그만의 독특하면서도 새로운 '문법'이다. 시집 제목 '밥섬'



에서 보듯 '밥'과 '섬'은 부조화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밥은 섬이다. 섬은 밥이다"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부조화의 대상이 하나로 결합될 때 낯설면서도 이채로운 감각을 선사한다. 바로 그의 시가 지니 매력이며 미덕이다.

추천사를 쓴 시인인 문정영 시산맥 대표는 "혼자 내밀하게 자신을 들여다본 상처가 있을 것"이라며 "이 시집을 상재한 후에 시인이 펼칠 행간들이 궁금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평한다.

한편 송과니 시인은 부안 출신으로 백제예술대 극작과를 졸업했으며 수주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38년간 글에서 찾은 삶의 가치 담았어요"

첫 개인전 연 서예가 신정자씨
서예·도자기 작품 53점 전시

"딸 셋의 엄마라는 이름을 얻고 딸들에게 좋은 글씨를 써서 시집갈 때 작품 한 점 선물하고 싶어 붓을 든 지 어느덧 38년이나 됐네요."

광주시와 전남도 추천작가로 활동 중인 서예가 신정자(68·사진)씨가 38년 글씨인생을 담은 생애 첫 개인 전시회를 열

었다.

신 작가는 지난 7일부터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성하 신정자서전'을 열고 있다. 예서, 행서, 전서체 등으로 구성된 서예 작품을 비롯해 양각·음각·박지 기법의 도자기 작품과 서각 등 53점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한 획을 꾸밀수록 힘이 드러나고 욕심도 생기고 부족함을 느껴 많이 망설였다"면서도 "하지만 글 속에서 삶의 가치를 느꼈고 그동안 도와주고 응원해 준 분

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신 세월만큼이나 수상경력도 꽤 화려하다. 화순 동면 난고 김삿갓공원 시비 중 '다수부' 휘호도 신 씨의 작품이며 한국 미술 50년작 작품집에서도 그의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신 작가는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전 등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야금 등 국악과 다도 등 전통문화에도 조예가 깊다. 전남도립대학교 도예차문화학과 외래교수, 사단법인에



명인 광주위원장, 김포 다도박물관 관교수인 그는 "다시(茶詩)를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싶다는"는 꿈을 밝혔다.

신씨는 "다도와 서예는 정신을 가다듬고 예와 멋과미를 느낄 수 있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정신문화 예술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작가의 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페인트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 자유도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불이 시도를 타고 번지지 않는 불연성 특성을 가진 화재안전화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멘디나외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안벽 단열방수, 방수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날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